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1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수산자원 연구소	담당자 • 자원조성팀장 정은주 ☎440-6402 • 담당자 정주연 ☎440-6411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천해역 수산자원 회복 위해 온 힘”
- 참조기, 꽃게 등 우량 수산종자 360만 마리 이상 자체생산·방류 예정 -

인천광역시는 인천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3월부터 치어 생산을 시작해 6월부터 11월까지 우량 수산종자 360만 마리 이상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는 수산자원연구소 생산동에서 산란한 어린 치어 등을 일정 기간 사육해 종자 방류 가능 크기*에 도달하면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방류를 실시한다.

* 점농어 전장 6.0cm이상, 참조기 전장 5.0cm이상, 꽃게 갑폭 1.0cm이상, 주꾸미 전장 0.5cm 이상, 갑오징어 전장 1.5cm이상, 바지락 각장 1.0cm내외, 참담치 각고 0.5cm내외

올해는 참조기 30만 마리, 꽃게 190만 마리, 주꾸미 50만 마리, 갑오징어 15만 마리, 바지락 60만 마리, 참담치 15만 마리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특히 참조기, 꽃게의 경우 인천지역 특산품종의 자원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자원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꾸미, 갑오징어는

어장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부터 시험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로 자체 생산 및 방류를 추진해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참조기, 점농어, 말백합, 전복, 낙지, 갑오징어 총 6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실시해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친어(번식을 위해 사육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성숙 어류)관리를 통한 종자 생산능력 향상 연구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5년('17~'21년)간 10종, 약 1,864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했으며,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지역 고유품종 종 보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경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와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술 확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 소득향상을 기대한다” 며 “방류 및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 어업인들께서도 연안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 어종별 방류일정

1. 7월 참조기, 주꾸미, 갑오징어 방류
2. 6~7월 꽃게 방류
3. 11월 바지락·참담치 방류

(상기일정은 기상상황 및 종자생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관련 사진

2021년 방류현장 [관련사진]

